

교육·복지 이제 문화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2012년 신년기자 간담회
진각문화전승원 개원법회 맞춰 회당문화재단 설립

“2012년을 ‘종단의 문화 포교 원년의 해’로 정하고 대중에게 생활 불교의 가르침을 폭넓고 깊게 전파하겠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월 30일 서울 월곡동 진각종 총인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혜정 정사는 “진각문화전승원 불사 회향이 예상보다 깊어졌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개관법회를 병행하고 불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관할 구청에 임시사용허가를 요청해 준공검사 전 임주를 추진 중이다.

진각문화전승원은 1만2500㎡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돼, 총인원, 복합전사관, 강단, 종주박물관, 밀교자료실, 세미나실, 종무행정공간, 도서관과 밀교체험공간 등을 갖춘 예정이다. 특히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을 밀교적 가르침과 세계 및 한국밀교문화역사를 조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 방침이다.

진각종은 종단 숙원사업인 회당 문화재단을 급근 중 설립·발족한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문화의 세 축을 구축해 생활불교를 통한 전법교화의 가치를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 설립되는 회당문화재단은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부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진각종은 전문성이 필요한 공연·학술 이사 등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진각종은 창종 이후 처음 교육재단을 설립해 위덕대 등을 개교·운

영해 왔다. 이후 국가복지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복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은 단일복지재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회당문화재단은 불교문화의 가치 창달을 위한 것으로 교육·복지·문화의 세 축이 완성돼 진각종의 교화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 좌측 1000여 평 부지에 연내 (가칭)진각문화체험관과 교육관을 지하 2층,

창종 66주년 ‘문화’ 화두로

생활불교 대중 전파키로

교육·복지 등 광복할 성장

조계종서 벤치마킹 시도

지상 5층 규모로 착공할 예정이다. 진각국제문화체험관은 일본 풍골중국 스리랑카 등 진각종의 해외 교류국가의 성직자 교육과 다문화 가정 지원, 한국불교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된다.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도 강화된다.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 개원에 맞춰 진각종회당 대중사의 어록을 영어·중국어·네팔어·스페인어·러시아어·출간한다. 미주지역 등 해외 심인당 수계회도 지속적으로 불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유럽지역 문화교육기관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스리랑카 넬공보에 운영 중인 유치원에 이어 정식 학교도 설립·운

행된다. 진각종은 지난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12년 학제의 교육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생 150명 등이 수학 중이다. 진각종은 이들이 진급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제를 연내 개설할 예정이다.

진각종이 두각을 보여 온 사회복지활동도 지속·강화된다. 진각복지재단은 불교계 최초로 서울 도선동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진각부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 심인당에 5층 규모로 들어서는 진각부자보호 시설에서는 20세대 45명의 한부모 가족이 생활하게 된다.

조계종은 3월 15~16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3원장·부실장 스님·교구본사 주지·중앙총회의원 등 150여 명이 진각종을 방문해 ‘종단 지도자 연수’를 개최한다.

조계종 관계자는 “방문·연수를 통해 창종 66년을 맞은 진각종의 발전 노후를 통해 조계종의 변화의 길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정 정사는 “조계종 지도자의 방문은 진각종이 창종 후 66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교육·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까닭이다. 진각종의 중앙집권체로서의 장점과 교육·복지 사업 노후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2009년 4월 통리원장에 선출돼 1년 4개월 여 남은 임기에 맞춰 송사 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는 “인수인계한다는 데, 내가 인수 받은 것은 모두 ‘내 탓’이다. 인계는 제대로 된 것만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단 안정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며 “진일보한 교화의 기틀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소임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수행과 종교간 대화로 세계 평화를

조계종 차기 종정 진제 대중사 美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모든 인류가 각자 생활 속에 마음을 닦는 수행을 꾸준히 해서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큰 지혜와 큰 자비를 갖추어 인류평화에 큰 공헌을 하리라 확신한다.”

조계종 차기 종정인 진제 대중사는 2월 1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지도자회의(The international Leaders Seminar)에 참석해 각국 대사와 상하원 의원 등을 대상으로

연설했다. 국제지도자회의는 2일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 사전 모임이다. 스님은 2일 분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에도 한국 불교계 인사로는 최초로 참석했다.

대중사는 국제지도자회의에서 “자비·사랑·명상·관용 같은 윤리적·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난한 이들을 돕고 어리석은 이들을 일깨워주며 굶주림과 질병을 없애

는 선행을 실천하는 면 등 다방면에 걸친 세계 여러 종교간 대화를 통해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연설에 180여 국 1200여 명이 명을 기입박수했다.

이에 앞선 1월 30일 진제 스님은 미 뉴욕 맨해튼 유대교 교회인 템플 임마누엘에서 세계 각국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불교의 참신 수행을 통해 세상의 갈등과 불만을 치유할 수 있다”며 “세계 주요 분쟁 종식을 위해 교리적 차이를 초월해 종교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교 배화교 등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재가자도 한마음으로 돕겠습니다” 불교 가치를 토대로 활동하게 될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 임원들이 공동 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불교포럼은 1월 3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불교 각계 지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졌다. 불교 포럼은 불교 교리 토론회부터 사회 현안 연구 등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고

종교계 수장 최초 용산참사 사면 요청

범어사 선거와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불교계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교계 수장 중 최초로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2월 2일 요청했다.

스님은 아직도 비극이 계속되는 현실에 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용산 참사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방문한 사회 현장이며 올해로 발생 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이다.

자승 스님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구속된 철거민과 용산 참사 관련자들에게 관용의 정신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스님은 “진정한 대화·소통은 관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현 정부가 주창한 공생사회를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석방과 특별사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민통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과 종단 관계자들은 범어사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단 현안관련 긴급 간담회’ 참석자들은 위법사항 발견시 선거 이후라도 당선 무효 조치를 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세계문화유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연등회가 세계적 축제로 거듭나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월 30일 문광부에서 열린 한류문화진흥단 현판식에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은 K-POP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한류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연등회 등 전통 문화를 접목시켜 한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광식 장관은 “지정 문화재가 안팎에도 세계문화유산 신청 준비를 해왔다. 연등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874호 CONTENTS

동안거 해제 범위	2
종합 2044 한국불교 전망 범어사 관련 성명서 중앙일보 '종정' 펴헤 발언	3
불자들 군종교구 신년기자 회견	4
종합 경전속 식물연구 보고서 발간	6
해외불교 리연방 부라티아, 불교 옴튼다	14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좌복 털고 중생위한 만행길 오르다

전국선원 2월 6일 동안거 해제

눈푸른 남자들이 동안거 옹정진 좌복을 털고 만행길에 올랐다. 2월 6일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총림을 비롯한 전국 선원에서는 일제히 해제법회를 열었으며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수좌들의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조계종 종정 범전 스님은 2월 6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해제법회에서 선지식을 만나 법좌를 돌리나 누는 분반과 선문답을 들고 만행길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를 당부

하는 범어를 내렸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정리한 (동안거 선사방함록(禪社芳函錄))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99개 전국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8곳, 비구니선원 36곳)에서 총 2382명(비구 1201명, 비구니 979명, 총림 202명)의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법문 2면> 차주 상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간화선 수행의 교과서, 무문관 무문관 참구

정휘옥 · 김사엽 제창
175×230mm 장정 / 416쪽 / 값 22,000원

“무(無)를 보았느냐?”
“아직입니다.”
곧 방장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네가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화두를 참구할 의지가 없는 게아!!!”

방장스님은 요령을 흔들었다. 썩 물러가라는 뜻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3, 4시간 후에 또 독침을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화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김사엽 저자의 첫 번째 독침)

저자들은 2003년 일본 임제종 고오가쿠지(向嶽寺) 선방에서 첫 독침을 가졌다. 독침(獨鍼)은 스승과 제자가 일대일로 만나 수행의 진척을 점검받는 선불교의 오랜 전통이다. 무사들이 생사를 걸고 대결을 하듯, 스승과 제자는 독침 때 목숨을 걸고 대면하는 선의 결전장이다.

“방장스님과의 독침 자리에서 머뭇대다간 번쩍 몽둥이가 날아오고, 모멸감에 치를 떨 만큼 자존심이 짓밟혔죠. 하지만 그때마다 화두를 뚫고 밀겠다는 분심이 일어났어요.”